

돌아온 KIA 에이스 윤석민

“ML 좌절, 핑계는 없다...KIA 성적 올리기 최선”



계약금+연봉 4년 90억원 계약...휴식 반납 팀 합류

포항 이동 시범경기 동행...“에이스 모습 되찾겠다”

“내가 부족했다. 핑계는 없다. KIA 투수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6일 KIA 팬들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시즌 미국에 진출했던 에이스 윤석민이 타이거즈맨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윤석민은 이날 친정팀 KIA와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대 규모인 계약금 40억원, 연봉 12억5000만원 등 4년 총 90억원에 계약을 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윤석민만 있다면 올 시즌도 해볼 만하다”던 KIA 선수들에게도 윤석민의 복귀는 깜짝 소식이자 반가운 소식이었다.

역대 최고의 금액으로 열렬한 환영 속에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윤석민의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도전이 아쉬운 실패로 끝났고, 에이스로서의 책임감은 더 막중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먼 길을 달려온 윤석민은 휴식도 마다하고 경기장으로 달려나왔다. 7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던 윤석민은 8일 휴식을 취한 뒤 9일 시범경기 선수단이 있는 포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일 밤 광주집으로 내려온 윤석민은 8일 일찍 합평 헬리콥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수들과 반갑게 재회한 윤석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율 훈련을 소화했다. 후배들에게 미국에서 배운 웨이트 방법을 전수해주기도 하고, 휴식 시간에는 동료와 탁구도 치는 등 내내 밝은 표정을 보여줬다.

윤석민은 “마음이 편할 리는 없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다. 끝까지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여건이 너무 좋지 못했다. 1·2군 감독이나 단장이나 내 편이 없었다. 스스로 나가겠으면 하는 분위기였고, 먼저 방출을 얘기

했을 때 오히려 고마워 했다. 내가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내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었으면 모르겠지 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희망이 없었다. 또 KIA에서 나를 간절하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음을 풀리며 보낸 시간이지만 시즌 준비에는 소홀함이 없었다. 지난 마무리 캠프때보다 한층 날렵해진 몸매를 선보인 윤석민은 이날 공도 던지면서 시즌 준비에 이상이 없음을 보여줬다.

윤석민은 “앞선 실패에 대한 핑계는 없고, 앞으로의 평가에 대한 부분도 내 몫이다. 예전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내 역할이고 의무다. 구단에서는 쉬라고 얘기해주셨는데 빨리 운동을 하면서 시즌 준비를 하고 싶어서 경기장에 나왔다. 이제부터 내 역할과 임무는 KIA 투수다. KIA를 대표하는 투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력 UP’ 마운드 청신호

NC와 시범경기 2연전 선발·불펜 2실점...1승 1패

김기태 감독 “전력에 큰 도움...윤 몸상태 보고 보직 결정”

에이스의 귀환으로 KIA 마운드 판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마운드 고민에 시달리던 KIA가 천군 만마를 얻었다. 에이스 윤석민이 돌아오면서 마운드 구상에도 한결 여유가 생겼다. 선발·중간·마무리 어느 하나 완벽하게 구색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윤석민 카드의 쓰임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시범경기를 위해 선수단을 재조정한 김기태 감독은 윤석민에 대하여 “우리 팀에 전력의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아직 몸 상태를 보지 못했다. 몸과 훈련 상태를 점검하고 (윤석민의) 보직 활용을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은 아직 윤석민을 만나지 못했다. 9일 윤석민이 시범경기 선수단에 합류를 한 뒤에야 구체적인 마운드 윤곽이 그려지게 된다. 윤석민의 합류 속에 시범경기 두 경기에서 마운드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준비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NC를 상대로 시범경기 2연전에 나선 KIA는 두 경기를 2실점으로 묶었다. 8일에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스티븐슨이 4이닝 노히트, 1볼넷, 4탈삼진의 투구를 선보이며 4-0 영봉패를 이끌었다. 이어 등판한 최영필-홍건희-이준영-문경찬-심동섭도 실점없이 5이닝을 책임지며 스프링 캠프 연습경기부터 이어졌던 10연패를 끊어냈다.

서서히 몸을 풀어왔던 양현종이 삼성과의 포항 원정에서 등판을 준비하면서 선발진은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임기준과 임준혁의 선발경쟁도 뜨겁다. 임기준이 5이닝 2실점의 피칭으로 NC전을 소화하며 여전한 위력을 보였고 중간으로 등판했던 임준혁은 11일 선발로 출격해 어필 무대를 갖는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자원들의 가세도 준비되고

있다. 시합조와 훈련조로 나눠 시범경기를 치르고 있는 KIA는 9일 일부 선수 명단을 교체한다. KIA가 주목하고 있는 신인 문경찬이 이미 선수단에 합류했고, 9일에는 김태영과 박준표가 윤석민·양현종과 포항으로 이동한다.

오는 14일 광주에서 열리는 LG와의 경기에서는 강속구파곽정철과 한승혁이 선수단과 동행할 예정이다. 옆구리 통증으로 오키나와 캠프에서 중도 귀국했던 한승혁은 9일 합평 헬리콥터에서 열리는 동국대와의 연습경기에도 출전해 실전 감각을 조율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디지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두 투수도 있다. 캠프 도중 부상을 당한 김진우와 허버드. 김진우는 대만 캠프에서 장딴지 근육 미세 파열 부상을 입었지만 전력으로 피칭을 소화했었고, 8일 캐치볼도 시작했다. 첫 연습경기 등판에서 팔꿈치에 공을 맞았던 허버드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다. 피칭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부상을 털어내고 순조롭게 재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맹장수술을 받은 김병현도 합평에서 재활을 시작했다.

/김여울기자 wool@

KIA 홈경기 요금 동결...오늘부터 시즌권 판매

총 72경기 18일까지...28일 개막전 입장권은 21일 예매

KIA 타이거즈가 2015시즌 홈경기 입장요금을 동결했다.

중앙지정석인 K9존은 성인 1만4000원, 중고생 및 군경 1만1000원, 어린이 7000원이다. 1·3루 내야 하단석인 K7존은 성인 1만원, 중고생 7000원, 어린이 5000원이며, K5존은 성인 9000원, 중고생 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내야 상단석인 K3존은 성인 8000원, 중고생 5000원, 어린이 3000원이다. 외야석은 성인 7000원, 중고생 4000원, 어린이 2000원이다. 휴일에는 평일 기준에서 각각 1000원 인상된다.

포수 뒤쪽 챔피언석은 3만5000원(휴일 4만원)이며, 중앙테이블 2인석이 7만원(휴일 8만원), 3인석이 10만원(휴일 11만원)이다. 1·3루 베이스 옆의 서프라이즈석은 2만원(휴일 2만2000원)이며, 코미코 파티석(4인석)과 스카이 피크닉석(4인석)은 각각 7만원(휴일 8만원)과 6만원(휴일

7만원)이다. 3루 끝에 위치한 타이거즈가 속석은 4인석과 6인석이 각각 6만원(휴일 7만원)과 7만원(휴일 8만원)이다. 스카이박스(10인석)는 50만원으로 2곳(1·3루측 각 1곳)을 경기 단위로 판매한다. 올 시즌부터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다.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및 1~3급 장애인, 미취학 아동 등은 매진시를 제외하고 외야석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또 1~3급 장애인인 장애인 지정석을 70% 할인된 4000원(휴일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4~6급 장애인, 경로 우대자는 테이블석과 특별석을 제외한 좌석의 입장료 50%할인 혜택을 받는다. 문화누리 카드 사용시 일반석에 한해 40% 할인된다.

한패이 카드 결제시와 자전거 이용객, 코레일 열차 티켓(승차일 전후 7일까지 유효)을 소지한 외부지역 팬에게도 1000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카드사 제휴의 경우 일반석에 한해 현대카드는 2500

원(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인 경우), 신한카드 2000원, 광주VISA와 삼성, 신한은 각각 1000원을 할인해 준다. 중복할인은 불가능하고, 1인 1매만 할인 가능하다.

한편 광주 개막전(28일·LG전) 입장권 예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인터넷 티켓링크(http://sports.ticketlink.co.kr) 사이트나 전화(1588-7890)로 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시즌권이 판매된다. 홈 72경기를 기준으로 정상가 대비 28.3~33.2% 할인된 금액에 판매된다. 중앙테이블 2인석은 3백80만원, 3인석은 4백50만, 포수 뒷자리인 챔피언석은 1인 기준 1백80만원에 책정됐다. 중앙지정석인 K9존은 70만원, 내야지정석인 K7존은 50만원, K5존은 45만원에 각각 판매한다.

시즌권 구매자에게는 구장 투어 등 홈 구장 행사가 있을 때 우선권이 부여되며, 경품 추첨시 별도 추첨으로 경품이 제공된다. 또 재구매와 포스트시즌 예매 우선권도 주어진다. 테이블석과 지정석에 한하며 티켓링크(070-8191-7890, 7899)를 통해 판매된다. /김여울기자 wool@